

# 지역 창작공연 제작 역량 입증

부안예술회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1억3000만원 전복 최대 지원액 확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예술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전북지역 문예회관 가운데 최대 지원액을 확보하며 지역 창작공연 제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이 단순 대관 중심 운영을 넘어 공연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는 공공 제작극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117개 문예회관, 121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95개 문예회관이 최종 선정됐다.

부안예술회관은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해 창작뮤지컬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꿈소' 기획안으로 전국 군 단위 문예회관 중 지원 규모 면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작뮤지컬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꿈소'는 일제강점기 고향염전을 배경으로 동화농민혁명 이후 열정 노동자로 살아간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부안 민중의 역사와 공동체의 시간을 그려낸 작품이다.

꿈소염전을 단순한 공간이나 기록이 아닌 사람의 삶과 선택이 축적된 장소로 바라보며 노동·저항·공동체의 기억을 서사 중심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꿈소염전을 단순한 공간이나 기록이 아닌 사람의 삶과 선택이 축적된 장소로 바라보며 노동·저항·공동체의 기억을 서사 중심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클라무오케스트라와 함께 창작뮤지컬로 제작되며 꿈소염전의 소금밭과 포구, 변산의 풍경 등 부안의 자연과 노동의 현장을 무대와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역사적 사건의 내열이 아닌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감정선에 집중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부안예술회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업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공연을 중심으로 교육·체험·관광과 연계 가능한 융합형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재공연과 시즌제 운영, 학교 연계 관람 프로그램, 열정체험과 결합한 관광 콘텐츠 등으로 확장해 부안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창작뮤지컬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꿈소'는 오는 11월 중 부안예술회관에서 초연될 예정이며 공연 일정과 세부 내용은 추후 군 및 부안예술회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24)

## 따다다당! 따다다당!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수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봉림 사람들이 한 두 사람씩 압박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고 집안에서도 마루나 토방에 서서 포박되어 가는 황전 사람들을 무심한 눈으로 지켜봤다.

"잘 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썩 다 죽어야 한다!"

봉림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을 새끼줄에 묶여가는 황전 사람들 머리위로 쏟아냈다. 작년 10월, 박대우의 만행에서 천운으로 살아남은 강씨 집안 사람들 일 것이다.

남준과 명희는 먼 거리에서 무리를 따라 오다가 마을 근처에서 뒷산으로 올라가 무리가 이동하는 모양새를 지켜봤다.

무리는 잠시 봉림에서 머물렀는데 남준과 명희는 강용대의 의도가 아닐까 싶었다. 느닷없이 불귀의 객이 된 강씨네 사람들 영혼에게 황전 박자들을 응징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함이 아닐까.

다시 무리는 봉림 뒷산 평평한 길을 따라 넘어갔고 이어서 개활지를 따라 곡선을 그리며 북쪽으로 이동했다. 전방에는 선운산으로 이어지는 봉암산이 보였고 아래에 도곡리 마을들이 보였다.

강용대의 중대와 묶인 사람들은 도곡리 마을을 지나 골짜기 봉암산으로 올라갔는데 시목동 계곡 근처에서 여자들은 더 올라갔고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앞을 보고 모두 앉게 했다.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건가 싶었다.

여자들이 봉암산 방향으로 더 올라간 뒤 잠시 후 강용대는 무전으로 통신을 했다. 저 앞에 황전 박씨 남자들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경찰들은 남자들을 향해 경기 관총을 겨냥했고 탄약을 장전했다.

"안 돼....."

"따다다당! 따다다당!"

명희의 입에서 짧은 탄식 같은 말이 나왔고 동시에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따다다당! 따다다당!"

봉암산 계곡에서도 기관총소리가 들려왔다. 시목동 계곡과 봉암산 계곡에서는 총소리 이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총소리가 온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켜버렸다.

실탄이 날아가는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만 삼킨 게 아니라 남준과 명희의 영혼마저도 집어삼켜버렸다.

아버지가....., 엄마가....., 동생들이..... 총을 맞고 고개를 앞으로 떨구며 땅바닥으로 무너졌다.

명희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양손바닥으로 감싼 채 무릎을 꿇으며 무너져 내렸다.

"이게 아닌데....."

남준의 입에서도 반작용인 듯 아무런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말이 터져 나왔다.

이게 아니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 박대우와 함께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는 건 운명이었다. 그러나 명희의 아버지 박규환과 어머니 연기택, 동생들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고한 박씨들이 죽는 것까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남준이 갖고 있던 적개심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싶었다. 가족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는 민족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적개심과 복수심은 순식간에 마음에서 휘발되었고 그 빈 공간에 허무함과 무력감과 그리고 명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와 앉았다.

명희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죽는데도 남준은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

"으으으으 으으으으....."

명희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무릎을 꿇고 목을 치받고 올라오는 울음을 억지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누르는 그 사이로 울음은 비집고 튀어나왔고 남준의 귀에 울음소리는 더 애끓게 들렸다.

정상적인 선에서 이탈해버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남준도 허둥했다. 그래도 눈은 여전히 실목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 중 하나가 이쪽으로 시선을 던지는 게 보였다. 그는 남준과 명희가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경찰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감지한 것일까. 남준은 전기총을 받은 듯 현실의 찬물을 그대로 뒤집어 썼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 익산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전시·예술교육 프로그램 '풍성'

익산시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로운 예술로 채워간다.

익산예술의전당은 2026년 한 해 동안 예술성과 대중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기획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공연장에서는 세계적 연주자와 국립단체의 수준 높은 무대가 이어진다. 5월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경', '클라라 주미강 & 김선숙 듀오' 공연이 열리며, 10월에는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4월), 국립국악관현악단(7월) 등 국립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11월 '블루노트 도쿄 율스타 재즈 오케스트라 & 리사 오노' 내한공연이 열려 재즈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싱어송라이터를 만나는 '사운드 포레스트 익산', 산책길에 만나는 음악 감상회 '산책음악', 가족 뮤지컬 '푸른 사자 와니니'(3월), 배리어 프리 공연 등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특히 익산시립예술단은 연간 6회의 정기공연과 함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시·초청



익산예술의전당 2026년 기획사업 포스터

공연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는 연간 5건의 특색 있는 전시가 이어진다.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아의 전시 '산책하는 집'을 시작으로 익산 지역 작가를 재조명하는 '익산미술상생전'이 3~5월 진행된다. 같은 기간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전 '지도와 변주'도 개최돼 상반기를 수놓는다.

하반기에는 1980년대 이미 지역을 문화사적으로 접근한 아카이브 전시 '이리 표본'(7~8월)과 어린이 특별전 '뚝뚝뚝 뚝뚝'(7~8월)이 관객을 맞는다.

감상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된다. 성인 대상 수채화·한국화 실기와 미술이론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교육을 비롯해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남원시, 춘향제 SNS 시민홍보단 2기 모집

남원시는 남원시와 춘향제의 다채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전할 'SNS 시민홍보단 2기'를 모집한다.

홍보단은 남원의 명소와 관광, 축제, 맛집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해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춘향제 공식 서포터즈로 활동, 모집 기간은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총 30팀으로 기자 10팀과 영상콘텐츠 20팀으로 구

성, 스마트폰과 숏폼 등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SNS 채널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관련 경력, 포스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며, 보유 채널의 활동 지수가 높거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